

포스트 프롤레타리아 여성

- 백신애의 「적빈」과 이북명의 「벌거숭이 부락(裸の部落)」을 통해 본 ‘능부(能婦)’의 재탄생-

明惠英*

(e-mail : mlh00y9@hanmail.net)

目次

- 1 들어가며
 - 2 유교적 女性像
 - 3 능부(能婦)의 삶
 - 3.1 내조하는 여성
 - 3.2 ‘마구니’와 ‘함지’로
 - 4 소외되는 性
 - 4.1 ‘금반지’의 속내
 - 4.2 빛바랜 ‘몽당치마’
 - 5 나오며
-

1. 들어가며

1930년대 들어 카프소설(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이전 프로소설이 결하고 있던 혹은 간과했던 문제들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논쟁과 작품 창작을 통해 카프계 작가들은 문학이 단순히 정치적 과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 현실과 인간의 운명을 탐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범했던 정치주의의 흔적을 일소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고, 그동안 편협한 국제주의의 이상에 매달려 식민지 자본주의의 조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국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과 강사, 한일근대 비교문학 전공.

底本 ; 백신애(1934.11), 「적빈」, 『한국현대대표소설선4』(1996), 창작과비평사. 이북명(1937.2), 「벌거숭이 부락(裸の部落)」,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五卷(2004), 綠蔭書房.

제주의로부터 오히려 벗어났던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조선적 특수성을 차츰 깨달아나가게 되었다.¹⁾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고 근대적 노동자계급의 삶과 실천을 제외해서는 현실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 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소설을 썼던 이북명의 등장은 프로소설계에 경이로 받아들여졌다.

이북명은 젊은 시절의 질소비료 공장 체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소설 「질소비료공장」은 1932년 《조선일보》에 연재되나, 검열에 의해 2회로 중단되어 1935년에 『文學評論』에 「初陣」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일본어로 재발표 되었다. 또한 1937년 2월 『文學案內』에 발표된 단편 「벌거숭이 부락(裸の部落)」을 비롯해 일본어 소설을 여러 편 남겼다.²⁾ 이북명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이를 피해 함남 장진의 수전촌으로 들어가 생활했으며³⁾ 시기적으로 「벌거숭이 부락」은 이 때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백신에 역시 1925년부터 <조선여성동우회>⁴⁾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적 여성 운동⁵⁾ 전개에 노력했던 작가이다. 1927년에는 사회주의 체험을 위해 시베리아 행을 감행 했지만, 두만강 국경에서 일본 경관에게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해 불임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⁶⁾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소설 「코레이(고려인)」(『新女性』, 1934)를 발표했다.

「적빈」(『開闢』, 1934.11)과 「벌거숭이 부락」(『文學案內』, 1937.2)은 두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여 완성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적빈」은 백신에의 대표 소설로, 무능하고 게으른 두 아들과 며느리를 보살

1) 김재용(1996), 「카프 신인의 등장과 소설 영역의 확대」, 『한국현대대표소설선』, 창작과비평사, p.474

2) 「初陣」(『文學評論』, 1935.5), 「鐵を掘る男」(『國民文學』, 1942.10), 「鳳さん」(『國民總力』, 1944) (布袋敏博(2004),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解説, p.327)

3) Daum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2008.9.18

4) 1924년 5월 4일 서울 세종동 조선여자강습원에서 발기 총회를 가졌다. 발기인으로는, 박원희·정종 명·김필애·정철성·김현제·홍순경·오수덕·우봉운·지정신·주세죽·최정삼·허정숙·이춘수 등 당시 사회주의여성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동년 5월 23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신사회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여성을 양성한다는 강령을 채택해,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부인들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 감시 하에서 적극적인 활동은 불가능했으나 최초 여성 사상단체로서 전국에 70개 이상의 지부를 결성했다. (Daum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2008.9.18)

5)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구조를 분석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사회 계급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성 계급'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여성차별의 기원이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제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과 가족의 분리, 생산 노동과 가사 노동의 분단, 그리고 전자의 우위성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차별의 복합적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リサ・タトル(1991), 『フェミニズム事典』, 明石書店, p.230)

6) 靑柳優子(1997), 『韓國女性文學研究』, お茶の水書房, pp.71~76

피는 노모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그린 작품이다. 작자는, 어떠한 곤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성을 형상화하여, 무능력한 남자들을 내조하는 강한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다.

「벌거숭이 부락」은 가난에 찌든 순남 가족과 하층민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순남 가족은 K읍 가까이의 매립지 부락에서 살고 있으며, 순남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주정꾼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바다를 메우는 매립 작업장에 매일 같이 나가 함지로 자갈을 나르는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한다.

송지현(1996)은 「적빈」을 “매춘택 노녀와 병어리 며느리를 통해 묘사되는, 여성의 수난에 대한 관찰과 고발”로 평가하였다.⁷⁾ 서정자(1999)는 “모성의 원형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하며, 덧붙여 “매춘택 노녀의 분배 전략을 치가(治家)의 원리”로 논하였다.⁸⁾ 또한 다소 비판적 시선인 아오야기 유코(靑柳優子, 1997)의 “아들 손자의 탄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나치게 기뻐하는 장면은, 무능력한 아들의 재생산이라는 시점을 작자는 외면하였다.”는 지적⁹⁾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페미니즘 비평적 시점에 치우쳐 있다.

「벌거숭이 부락」은 월북 작가의 소설인 점이 작용한 때문인지 호테이(布袋)에 의해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¹⁰⁾ 따라서 선행연구 또한 전무하다.

「적빈」과 「벌거숭이 부락」에는 1930년 당시 조선의 하층민들의 삶과 유교적 여성상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1920년대의 신여성, 1930년대 초반의 투쟁하는 공장의 프롤레타리아 여성에 이어 형상화 된 유교적 여성상인 ‘능부(能婦)’의 삶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2. 유교적 女性像

근대에 들어 1910년대 신여성들이 주창한 여성상인 ‘자립한 개인’의 개념에는 결혼한 여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나혜석은 단편 「경희」(1918)를 통해 결혼 후 겪게 되는 구습(=유교)의 폐단을 지적한 다음,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김명순 역시 단편 「돌아다 볼 때」를 통해 여주인공이 며느

7) 송지현(1996),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p.134

8) 서정자(1999),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p.221

9) 靑柳優子(1997), 앞의 저서, p.75

10) 권영민(2004), 『한국현대문학 대사전』과 권영민(1990), 『한국근대문인대사전』에는 누락되어 있다.

리 되기를 거부하고 사랑을 택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김일엽도 소설 「자각」(1926)을 통해 구여성의 흑독한 시집살이(=유교 규범)를 폭로하며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1930년대의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조차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지향하며, 대부분 결혼하기 전의 공동체안의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강력한 유교문화 속에서 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른바 구속을 의미하였으므로 여성 작가들은 이에 강한 반론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유교적 규범은 어떠한 방식으로 담론화 되었을까?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가훈서(家訓書)를 편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훈서(女訓書)’가 탄생하였다.¹¹⁾ 김연순(2005)은 사대부들이 편찬한 여훈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논하였다.¹²⁾ 첫째, 조선 여성의 삶을 시집살이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유일의 출가외인(出家外人)논리를 창출하였다. 사대부 여훈서 『규범』(작가와 연대 미상)에는 출가외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명시되어 있다.

여자가 출가하면 원부모(遠父母) 이형제(離兄弟)하고 시집이 즉 내 집이 되나니 시부모를 극진히 섬겨야 며느리 도리를 잃지 아니 하나니라.¹³⁾

즉, 여성이란 존재는 출가하면 부모와 멀어지고 형제와 헤어지는 남이라는 의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둘째, 제가(齊家) 중심의 기능적 여성상을 강조하였다. 즉 유교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여공(女工;음식과 의복 만드는 일)과 치산(治産;재산의 관리)에 능한 능력 있는 부인 즉 ‘능부(能婦)’¹⁴⁾라는 새로운 기능적 여성상을 탄생시켰다. 능부는 내조(內助)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능부는 남성의 완성을 위해 보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가정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세계가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머물렀던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취를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사

11) 그 전에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典範』여훈서가 기초가 되었다.

12) 김연순(2005),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150~153

13) 『규범』 「사천지도라」, p.102, 김연순(2005)논문 재인용.

14) 능부(能婦)는 고려말기 신홍 사대부들을 일컫었던 ‘능문능리(能文能吏)’에서 따온 개념이다.

회의 유교 가부장제는 호부와 열녀를 통한 관념적인 지배 위에, 능부의 현실적인 참여에 의해 유지되었다.

셋째, 불투기(不妬忌)를 강조하였다. 성리학의 엄격한 욕망의 통제는 남성들의 외도와 축첩이라는 현상을 낳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에게 불투기라는 규범을 요구한 것이다. 불투기의 덕목은 자유로운 욕망의 발산이 제한되어 있던 유교적 질서 속에서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의 禮를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시대의 禮教的 여성상¹⁵⁾은 생존을 위한 수용이라는 형태로 내면화 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여성상이 1930년대 후반에 발표된 문학 작품 「적빈」과 「벌거숭이 부락」에서 부활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적빈」의 서두를 보면 매촌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의 둘째 아들이 매촌(梅村)이라는 산골로 장가를 간 후로는 그를 부를 때 누구든지 ‘매촌택 늙은이’라고 한다. 늙은이라는 꼭지에다가 ‘매촌택’이라고 특히 택(宅)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은진 송씨(恩津宋氏)로서 송우암(宋尤庵)선생의 후예라고 그 동리에서 제법 양반 행세처럼 해 오던 집안이 늙은이의 친정으로 척당이 됨으로서의 부득이한 존칭이다. (「적빈」, p.459)

매촌택은 다름 아닌 우암 송시열(1607~1689)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소설 모두에 명시되어 있다.

성리학자 송시열은 조선여성의 최초의 사대부 여훈서인 『우암선생계녀서』(이하 『계녀서』로 칭함)를 편찬한 사람이다. 그는 출가를 앞둔 큰딸에게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지침을 기록한 『계녀서』를 펴냈다. 『계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¹⁶⁾

- | | |
|----------------|----------------|
| 1. 부모섬기논도리라 | 2. 지아비섬기논도리라 |
| 3. 식부모섬기논도리라 | 4. 형제화목흐논도리라 |
| 5. 친척을화목흐논도리라 | 6. 조식가라치논도리라 |
| 7. 제사밧드논도리라 | 8. 손디접흐논도리라 |
| 9. 투기흐지말나논도리라 | 10. 말숨을조심흐논도리라 |
| 11. 지물존절리쓰논도리라 | 12. 일부지런이흐논도리라 |

15) 禮가 잘 실현된다는 의미는 인간이 각자의 처해진 분수 즉 차별적인 사회 질서에 순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6) 『우암선생계녀서』(국립중앙도서관장본), 『내훈·계녀서』, 김종권 역주(명문당, 1986)

- | | |
|--------------|----------------|
| 13. 병환모시논도리라 | 14. 의복음식흔논도리라 |
| 15. 노비부리논도리라 | 16. 꾸이고밧논도리라 |
| 17. 팔고사논도리라 | 18. 비슈원흔논도리라 |
| 19. 중요로운경계라 | 20. 옛스름착흔행실말이라 |

『계녀서』는 순 한글로 되어 있으며 내용이 간결하고 일상생활에 요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손쉽게 필사를 통해 확산되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에서 특히 불투기를 강조한 것은 축첩으로 인한 가정 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팔고 사는 도리와 꾸고 밧는 도리는 규범을 벗어나 현실적인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송시열은 조선 여성의 유교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프롤레타리아 작가 백신애가 1930년대 후반에 「적빈」을 통해 제시한 여주인공이 송시열의 후손이라는 점과, 이복명이 「별거숭이 부락」을 통해 형상화한 유교적 여성상은 프로 여성의 대체 캐릭터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다음 항에서 유교적 여성상인 능부(能婦)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능부(能婦)의 삶

3.1 내조하는 여성

「적빈」의 여주인공 매춘택 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은 오래전에 죽은 남편과 닮아 욕심이 많고 심술이 사나워 마을에서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람구실을 못한다. 그나마 둘째아들은 일찍 결혼한 덕에 다년간 남의 집 고용살이로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탠다.

그리고 둘째아들만 하더라도 남의 집에 고용살이로 있을 때는 그의 아내와 늙은이는 날만 새면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무명베짜는 집에 가서는 베 매어주고 옷감 얻고 하여 고용살이해서 남긴 돈은 그대로 소롯이 모아두게 되었었다. 모아둔다 치더라도 그까짓 일년에 십원 내외에 불과한 돈이지마는 늙은이는 천냥 만냥같이 귀중히 여기고 든든하였다. ‘어서 몇 십원 모이면 남의 논이나 밭을 대지(貸地)로 얻어서 제 농사를 지어 보리라.’ 하는 희망에 즐거워하며 남의 집에 가서 뼈가 녹게 일해주고 천대받고업신을 받아도 재미가 있었다. (「적빈」, pp.461~462)

매춘덕이라는 호칭은 둘째아들이 매춘으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매춘덕”은 장래성이 없는 큰아들 대신 둘째아들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장자(長子)선호사상은 부정된다. 매춘덕은 둘째아들이 고용살이를 해서 벌어들인 돈은 아들 내외의 장래를 위해 “소롯이 모아”두고 대신에 둘째며느리와 허드렛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지혜를 보인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매춘덕은 드디어 “흙담집”한 채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꿈에 그리던 논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도 마을 노름꾼의 말에 솔깃해 속아 넘어간 둘째아들의 과욕 탓으로 하루아침에 날리고 만다.

옛적부터 기쁜 일이란 오래 계속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데 있으리라고 늙은이와 매춘이 부부는 밤낮 이를 같고 애꿎은 담배대만 두들겨 분질러도 한 번 뉘인 그 돈이야 돌아올 리가 만무하여 늙은이는 목을 놓고 울었다. (『적빈』, p.462)

이처럼 믿었던 둘째아들마저 매춘덕을 한 없이 실망시키자 “목을 놓고”우는 것으로 감정을 정화시킨다. 그러나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첫째 아들이 사방공사를 해놓은 산에서 나무를 도둑질해오다 들켜 구류를 사는 대신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등 악재가 되풀이 된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춘덕은 두 며느리가 동시에 임신을 해 산달이 가까워지자 “아마도 너희 둘이 모두 아들을 낳을 게다.”하며 스스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출산 때 사용할 미역과 쌀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이런 매춘덕에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늙은이는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걱정을 해? 제 입추신도 못하면서 자식 만들 줄은 어떻게 알어.”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이럴 때마다 그녀는 몇 안 되는 이를 드러내며 “히에.”하고 “고양이처럼” 웃어넘기며 현실을 긍정한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소설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다.

늙은이는 지긋지긋하게도 망나니인 두 아들을 원망이나 미워나 하는 것도 이제는 면역성이 되어 그대로 잠자코 방안으로 들어갔다. (『적빈』, p.465)

바가지의 밥을 덜어서 돼지를 주고 자기는 손가락에 묻은 밥알만 뜯어 먹었다. (『적빈』, p.470)

“대체 해산을 하면 뭘 먹을려고 이려고만 있어?” 늙은이는 목에 말라붙은

것 같은 작은 소리로 노하지도 않고 말하였다. “일하러 갈래두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누웠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나? 젊은것은 어데 갔노.” “뒷산에 나물 캐러…” (『적빈』, p.465)

매촌댁은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게도 망나니”인 두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기력도 없다. 그런 두 아들을 낳은 게 죄라도 되는 듯 “잠자코” 현실을 감내할 뿐이다. 한심한 아들들에게 그다지 “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웠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나?”하며 얼리듯 나무란다. 그런 후에는 “바가지”로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거나 쌀을 퍼주며 한없는 모성애를 보인다.

한편 『벌거숭이 부락』에 등장하는 순남 어머니 상황 또한 매촌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여성이다. 순남 가족은, 아버지 문성도, 어머니, 장녀 순남, 차녀 금남, 장남 복돌, 차남 복남 등 여섯 식구이며, 이들은 함경남도 어느 해안에 조성된 매립지 부락에서 토지를 빌려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술주정뱅이 남편과 돼지 새끼들 같은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부양하고 있는 엄마는, 이 조상대감제가 최대의 위안이었다. 맑은 날, 흐린 날은 매립지 공사장에 나가 함지로 모래와 자갈을 날라다 주고 60전을 받아, 어둑해진 골목길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 왔다.¹⁷⁾ (『벌거숭이 부락』, p.120)

40대인 순남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술주정뱅이 남편”과 “돼지 새끼들 같은” 먹성 좋은 자식들 부양을 위해, 매일 같이 매립 공사 현장에서 “함지”로 골재를 날라 하루에 60전의 임금을 받아 온다. 일이 끝나면 언제나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남편에게는 한마디의 불평이나 불만도 표하지 않은 채 묵묵히 현실을 감내한다. 게다가 한심한 무능력 남편의 안녕을 위해 무당을 불러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최대의 위안”으로 삼는다.

이번 조상대감제 비용 일금 5원을 엄마는 개똥 아줌마 집에서 육부 이자를 주고 빚을 내 왔다. 남편 나이가 기수인 해에는 반드시 닭을 신에게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남편은 금년에 47세이다. (중략) 엄마는 밥 두 그릇과 고기 전부를 함지에 담아 순남을 시켜 성인 무당에게 갖다 주도록 일렀다.¹⁸⁾ (『벌

17) 生活を知らない、酒呑みの夫と、豚の仔見たいな餓鬼達を、自分の手一つで養って行く母にはこの祖上大監祭が最大の慰安であつた。照る日曇る日、埋立工事場に備はれて、ハムジで砂、砂利を運んでは、六十錢貰つて、薄暗くなつた小路をクタクタに疲れて歸つて來た。

18) 今度の祖上大監祭費、一金五圓也を、母はケトンバーの母の所に行つて、六分利子で借用して來た。夫の年齢が、奇數成る年には必ず鶏を神に供へる習慣であつた。夫は今年四十七

거숭이 부락」, p.121)

그녀가 이렇게 빚을 내서까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자손의 번영”과 “가문의 융성”, “지긋 지긋한 밑바닥 생활로부터 벗어나기”위해서이다. 즉 문씨 집안의 가업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여기에다 남편의 나이가 홀수인 해에는 닭을 잡아 상에 올리는 관습에 따라 상차림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성을 다한 조상대감제가 끝나면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해도 주지 않았던 귀한 음식을, 막노동에서 쓰던 “함지”에 담아 신처럼 믿는 “聖人무당”에게 몽땅 바치는 등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순남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술주정뱅이이자 게으름뱅이인 무능력한 남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묵묵히 내조를 다한다. 그러나 그녀의 치적은 여기까지로, 기실 그녀는 소설에서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하며, 딸을 기생으로 팔아넘기는 비정한 엄마로 형상화된다.

매립지 주민 모두가 거지로 나셨다. 그러나 순남 어머니는 아무래도 신시가지로 거지로 나서는 싫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 성도에게 성인 무당의 본순남의 점괘에 대해 꺼내며 딸을 팔자고 하였다. 남편도 찬성했다. (중략) 성도는 고주사에게 머리를 벽벽 긁으며 생활난을 빌미삼아 순남을 점괘대로 어딘가에 팔겠다고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¹⁹⁾ (『별거숭이 부락』, p.127)

순남은 16세로 야학²⁰⁾에서 2년간 공부한 덕에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세탁과 물 길러오기, 동생들 돌보기를 헌신적으로 행하는 어머니의 조력자이다. 그런 그녀를 홍수로 생활난에 허덕이게 되자 남편을 부추겨 비밀 창기 소개업자라인 고주사 부부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である。(中略)母は御飯二サバリと、魚肉類全部をハムジにのせて、順男に聖人巫女の家に持って行かせた。

19) 埋立部落民全体が、乞食に早変わったからであった。しかし順南の母は、どうしても新市街の方に、飯貫に行く気にはなれなかった。それで或夜、夫の成道に、順南を占った聖人巫女の占卦を話してから、相談を持ち出した。夫も賛成した。(中略)成道は高主事の前で、ゴシゴシ頭を掻きながら、云い憎くそうに生活難を訴え、順南を聖人巫女の占い通り何處かへ、世話してくれと頼んだ。

20) 농민 조합 강령에는 ‘국고 지원 탁아소와 무료 산과원 설치, 농촌 여성을 위한 정치, 사회적 차별 철폐, 여성을 위한 야학 설치, 일제 어용 단체인 여자 청년단과 부인단의 즉각 해체’ 등의 사항을 명시해, 농촌 지역에 잔존해 여성을 억압한 모든 악법과 구태 폐지를 주장했다고 되어 있어, 1930년대에는 하층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야학이 많이 설치되어 농촌 여성들의 큰 반향을 불러왔다. (전경옥 외3인(2004), 『한국 여성 정치 사회사』, 아시아 여성연구소, p.306)

이처럼 「적빈」과 「벌거숭이 부락」에는 매춘덕과 순남 어머니에 의해 ‘내조’하는 유교적 여성상이 표상되어 있다. 두 여성은 하나같이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내면화하고 있지만, 자식과 남편에게 ‘내조’의 부덕을 몸소 실천하는 적극적인 유교적 여성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유교가 조선의 결혼한 여성에게 원했던 ‘내조(內助)’란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념일까?

유교에서 주창한 유교적 여성관은 덕녀(德女)이다. 이는 중국의 반소가 말한 사덕(四德; 婦德, 婦容, 婦言, 婦功)을 충실히 수행하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며, 남편의 생사와 무관하게 평생 절개를 지키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부지런하며 검소한 여성이다. 그러나 조선의 유교는 여성에게 삼종지도와 불경이부(不更二夫) 담론으로 여성을 가족 내에서 배제하는 한편, 가문과 국가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여성들의 생성의 힘에 주목하여 ‘내조’라는 참여의 이념을 만들어 냈다. 중국의 유학자 유향은 『열녀전』²¹⁾을 통해 여성을 집안에 머물게 하면서 남편과 아들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가정 경영은 물론, 국가 경영에까지 미치게 하는 방법으로서 내조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내조는 삼종지도로 규격화된 수동적인 여성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유향이 제시하는 여성상은 한편으로는 유교적 여성상을 충실히 내면화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라는 형식을 빌려 능동적으로 남성을 완성시키는 모습이다. 이처럼 어머니로, 아내로, 그리고 딸로서 사리를 일깨우고 재앙을 대비시키며, 적극적으로 남성을 이끄는 ‘내조하는’ 여성상을 제시하였다.²²⁾

매춘덕은 “망나니”인 두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를 몸소 실천을 통해 가르친다. 큰아들에게는 임신한 아내를 배려하는 가르침을, 둘째아들에게는 사리를 일깨워 가정을 일구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며 내조의 덕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순남 어머니 또한 가문의 번성과 47세인 남편의 앞날을 위해 조상에게 제

21) 유향은 한나라 성제(成帝) 때의 관록대부로 조비연 형제가 임금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지었는데, 여인의 덕과 선악이 국가의 안정·혼란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를 송나라 왕회(王回)가 모의(母儀)·현명(賢明)·인지(仁智)·정순(貞順)·절의(節義)·변통(辯通)·열애(孽嬖)의 7전으로 나누었다. <대명회전 大明會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책은 세종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어숙권(魚叔權)의 <괘관잡기 裨官雜記>에서는 1543년(중종 38) 유항(楡沆)·신정(申琤)이 번역했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의 필사본과 1918년 태화서관에서 발행한 활자본 <열녀전>이 전한다. 필사본은 송(訟)과 찬(贊)을 생략한 것 이외는 유항의 <열녀전> 37편을 그대로 완역했으며, 활자본은 총 66회로 유항의 열녀전에서 32명, 한대 이후부터 송대까지의 인물 34명을 실고 있다. 신분, 가계를 언급하는 부분과 <시경 詩經> 등의 구절을 인용한 평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여인의 행적만을 기술, 전(傳)의 형태를 벗어나서 소설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Daum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2009.1.24)

22) 김언순(2005)의 앞의 논문. pp.83~84

사하며 내조한다. 그러나 그녀의 내조는 오로지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발휘되며, 평소에 헌신적으로 가사를 도왔던 순남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매정하게 버려진다.

3.2 바구니와 함지로

「적빈」의 매춘덕과 「벌거숭이 부락」의 순남 어머니는 영락한 집안으로 시집와 무능력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기울어 가는 가정경제에까지 발 벗고 나선다. 이러한 그녀들의 사고의 저변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 부양에 몸을 사리지 않는 ‘강한 어머니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그 길로 바로 단골로 다니며 일해 주던 집들을 돌아다니며 사정이야기를 하고 얼마라도 꿰주면 그만치 두고두고 일을 해주리라고 애원을 해보아도 한집도 시원케 대답해주지 않았다. (「적빈」, p.464)

그래도 그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또 한 집을 들렀다. 그는 남들의 천대함을 슬퍼할 줄도 몰랐고 낙심할 줄도 몰랐다. (중략) 쌀 한 되, 보리쌀 두 되, 명태 두 마리, 미역 한 쪽을 두 말없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중략) 그는 아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바구니 속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었다. (「적빈」, pp.464~465)

늙은이는 지금까지 먹으라고 주는 것을 사양해본 적이 없는 터이라 김치 중발을 넓적 받아 국물부터 후루룩 삼켜보는 것이었다. 그의 몸뚱이는 굵아 배 틀어졌어도 오직 창자만은 무쇠같이 억세고 튼튼하여 지금까지 배앓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적빈」, p.468)

매춘덕은 출산을 앞둔 두 며느리들을 위하고, 무능력한 두 아들을 대신하여 남의 집일을 해주기로 하고 가불을 요청하지만 여의치 않자 동냥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때는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대접받던 그녀지만 몰락한 가문의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드렛일도 동냥질도 모두 사양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 그녀는 “남들의 천대함을 슬퍼할” 겨를도 “낙심할” 여유도 없이 지금까지 “배앓이” 한 번 하지 않은 무쇠 같은 친한 몸으로 거듭나, 동냥 받은 물건을 한꺼번에 “바구니 속에 넣어”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온다. 이 후에도 손자를 맞이하기 위한 노년의 치산(治産) 활동은 계속된다.

이날은 이 집에서 이것저것 치위도 주고 앓는 아이의 시중도 들고 하여 저녁까지 잘 얻어먹고 돌아오려 할 때 마누라는 수고하였다고 치맛자락에 보리쌀 두어 되를 부어주었다. (『적빈』, p.468)

이렇게 남의 집 일로 마련한 음식은 노녀의 지혜의 잣대에 따라 두 며느리들에게 적당히 배분된다. 노녀는 다년간 허드렛일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생활의 노하우를 쌓아 마을에서 병이 나면 으레 매춘덕을 찾았다.

평생에 하도 많은 남의 집을 돌아다닌 늙은이는 남의 앓는 것도 많이 보고 고치는 것도 많이 보고 듣고 해온 터이라 지금 와서는 웬만한 서투른 의원보다 아는 것이 많아 체중도 내려주고 ‘객귀’도 물려주고 조약도 가르쳐주고 하여 동리에서는 앓는 사람이 있으면 약방의 감초같이 반드시 불려가는 것이었다. (『적빈』, p.467)

이는 매춘덕이 유교적 여성상을 내면화하고 ‘내조’와 ‘치산’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얻어진 명성이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타개적 삶의 자세 또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써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노녀의 역척스러움은 소설의 후반에 가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저까짓 보리쌀 두 되를 가지고 몇 날을 지탱할까.’하는 생각에 그의 두 다리는 가리가리 힘이 빠지고 돼지와 매춘이의 못난 것이 새삼스럽게 알미웠다. 그리고 눈앞에는 오늘 난 아기의 두 다리 사이에 사내란 또렷한 그 표적이 어릿어릿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였다. 그는 이윽히 걸어가는 사이에 몹시 뒤가 마려워서 잠깐 발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 본 후 속옷을 헤치려다가 무엇에 놀란 듯 재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사람은 똥 힘으로 사는데…’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 할 처지이므로 지금 똥을 누어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꺼꾸러지고 말 것 같았던 까닭이었다. (『적빈』, p.471)

노녀는 돼지와 매춘이의 “못남”을 내조하며, 갓 태어난 손자를 부양하기 위해 “똥 힘”까지 비축하는 등 다시 한 번 자신에게 기합을 넣는다.

그렇다면 「벌거숭이 부락」의 순남 어머니의 역척스러움은 어느 정도일까? 소설 서두에는 순남 어머니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몇 분 뒤 꼬마들이 달려 나왔던 골목에서 무서운 형상을 한 40대 여성이 굵직한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맨발로 달려 나왔다. (중략) 소리 안 나는 총 어디 없을까.(중략) “이 간나새끼 벼락이나 맞아죽어라.”²³⁾ (『벌거숭이 부락』,

p.119)

순남 어머니 역시 넷이나 되는 아이들의 교육과 어려운 가계를 책임지다보니 “무서운 형상”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다. 자식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내뱉는 욕설은 그녀가 처한 긴박한 처지를 대변해 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남 어머니는 “매립지 공사장에 나가 함지로 모래와 자갈을 날라다 주고 60전을 받아, 어둑해진 골목길을 파김치가 되어 돌아올 정도로 전력을 다해 여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게다가 제사에 쓸 음식을 준비하는 일마저도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역적을 보인다.

점심때가 지나자, 어머니는 복순을 빨래터에 보내고 어린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고서야 혼자서 닭을 잡아 삶고, 밥을 짓고 생선을 구웠다.²⁴⁾ (『벌거숭이 부락』, p.121)

이처럼 순남 어머니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닭을 잡아” “조상대감제”에 올릴 제수를 손수 마련하고, 행여 방해가 될까 “어린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든다. 그러나 그 해에도 순남 어머니의 지성은 조상님들에게 닿지 않아, 또 다시 궁핍한 생활이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순남 어머니는 겨울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부엌돌 어머니와 복돌 어머니를 동행하고 어느 때처럼 석탄 도둑질에 나선다.

아줌마들은 산 밑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복돌에게 명했다. 복돌은 익숙한 솜씨로 네발로 기어 철망 경계선까지 가서 울타리 기둥의 못을 빼고 옆으로 제꼈다. 그러자 철망이 늘어져 출입구가 생겼다. 잠시 후 복돌은 아줌마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망보는 영감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 세 아줌마들은 함지를 들고 앞은걸음으로 철망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들은 어둠 속에서 석탄 더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중략) 그녀들은 땀감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었다.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그들에게 죄책감은 제삼의 문제였다. 잡히더라도 먹여주는 주겠지 하는 것이 그녀들의 마지막 위안이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전투 앞에 인정, 도덕, 청렴...이 다 무슨 소용인가?²⁵⁾ (『벌거

23) 數分後、この餓鬼等が出て來た同じ小路を、すごい形相をした四十婦が、太い柳の枝をシカと右手に握って、素足のまま走ってゐた。(中略)音のしない銃は、ないかいな。(中略)

此畜生奴、落雷にぶつかって、焦げうせろッ。

24) 晝過ぎ、母は福順を洗濯にやり、餓鬼達を外へ追ひ出してから、獨りで鶏を殺して煮、ご飯をたき魚肉をやいた。

25) 母達は、山の崖下の闇の中に、うづくまると、福突に命じた。福突はもうこの手には馴れ

송이 부락』, p.125)

성남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아줌마들은 복돌이를 앞세우고 “함지”를 지참한 채 일상처럼 석탄을 도둑질해 땀감을 충당해 왔다. 그녀들은 궁핍한 생활을 타하며 “잡히더라도 먹여는 주겠지”하는 배짱으로 “죄책감”이라고는 느끼지 않는 그야말로 억척 아줌마들이다.

이처럼 예순셋의 매춘택과 사십대 중반의 중년 여성인 성남 어머니는 하나 같이 어려운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억척스러움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척 여성상은 단지 집안이 궁핍했기 때문에 생겨난 유형일까? 또한 조선 시대 후기에 창조된 이른바 사대부 집안의 능부(能婦)와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김연순(2005)은 능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능부(能婦)는 내조(內助)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능부는 남성의 완성을 위해 보조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가정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세계가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머물렀던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사회의 유교 가부장제는 효부와 열녀를 통한 관념적인 지배위에서 능부의 현실적인 참여에 의해 유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삼종지도를 내면화하면서도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강한 여성의 모습을 발휘하였다. 조선사회에서 능부에 대한 요구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힘든 노동위에 가정 경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수탈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여성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²⁶⁾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능부의 형태는 이타주의(利他主義)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근대초기 신여성들의 계몽정신과는

たと見えて、四這ひに這ふて車庫の針金の境界線まで行くと、柵の一つの釘を横にひねった。すると針金が緩んで、出入りが出来た。しばらくすると福突は母達の所に戻って来て、見張爺の居らない事を知らせた。三人の母はハムジを持ったまま、居行這いで柵内に入って行った。彼女達は、暗がりの中で、今、粉炭の小山の方へ、抜き足、さし足で一步一步近づいて行くのである。(中略)彼女達は薪炭問題を斯うして解決した。切羽詰った状態に置かれてゐる彼女等には、罪惡は第三の問題であった。何、つかまったら、食わせるだろうーこれが彼女等の最悪の場合の慰安であった。ノルカソルカの關が原の戦いの前に、人情、道徳、清廉…があつてたまるものか！皆無のドン底に喘いで居る彼女等には、自分達の行動の全部が、当然のように思われた。

26) 김연순(2005)의 앞의 논문. p.152

배치되는 이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부장제적인 유교적 관념은 구습(舊習)으로 치부되어 신여성과 엘리트 신남성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국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경제가 파산을 맞이하게 된 1930년대가 되자, 사회 속에서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다시 한 번 능부라는 유교적 여성상이 문학작품을 통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능부’의 부활은 오늘날 여성의 몸의 수신(修身)차원에서 재고되고 있다. 이은선(2000)은 “여성과 남성간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을 생물학적인 또는 전(前)사회적인 몸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은 지금까지 사회학적 페미니스트들에게 결코 생산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몸과 性이 사회체계 안에서 갖는 중요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자연적 몸이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하며, 우리의 신체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진지하게 수증해야 한다.”²⁷⁾고 주장한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우리에게 몸이 우리 존재의 근원성임을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일깨움을 통해서 여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몸과 성의 주체가 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들에게 금지되었고 억압되었던 性과 쾌락의 언어를 더욱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몸의 언어는 항상 다시 부패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더 비인간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다시 주체적인 ‘몸의 기획’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유교 전통의 다양성으로부터 陽明의 대안적인 몸담기의 의미를 재고하기에 이른 것이다.²⁸⁾ 즉, 유교 전통을 통해서 관계맺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성의 몸을 희생으로 삼지 않는 유교예식을 개발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또한 페미니즘의 성찰적 견지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매춘덕과 순남 어머니의 생명력 넘치는 억척스러운 모습은 사대부들의 몰락이 사회문제화 되었던 조선 후기에 요구된 내조에 치산을 더한 능부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으며, 그 대상이 서민층으로 확대 되었다는 느낌과, 보다 더 서민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된 그야말로 오늘날의 “아줌마”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아줌마라는 호칭은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고 주책없으며 성적 매력 없이 억척스런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²⁹⁾ 그러나 이 호칭이 능력 있는 여자 즉 능부에서 변용된 개념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줌마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27) 이은선(2000), 「유교적 몸의 修行과 페미니즘」,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Ⅱ』, 한국유교학회, p.14

28) 이은선(2000), 앞의 논문, p.27

29) 여성을 위한 모임(1999), 『제3의성-중년여성 바로보기』, 현암사, p.26

4. 소외되는 性

4.1 ‘금반지’의 속내

한편 「벌거숭이 부락」의 순남 어머니를 비롯해 결혼한 부락의 중년 여성들은 하나같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노력하는 “능부”로 그려지지만, 그녀들에게서 성적 매력이란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2년 전 매립 부락으로 이사와 남편의 사고로 졸지에 과부가 된 한 중년 여성은 부락 남성들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한다. 이렇듯 「벌거숭이 부락」에는 기혼 여성의 탈성화, 과부의 성적 욕구 해소와 이에 따른 매매춘이 문제시 되고 있다.

먼저 순남 어머니의 섹슈얼한 모습은 소설을 통틀어 단 한번 묘사된다.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평소 화가 날 땐 “무서운 형상”으로 “굵직한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야말로 여자로서의 성적 매력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이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30원이라는 거금이 생긴다.

그날 밤 엄마는 개똥아줌마의 빔을 갓고 남은 돈으로 신시가지에 있는 금방에 가서 한 돈 오부의 금반지를 19원 50전에 사서 끼웠다. 성도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대로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5전 갈보 집에 가서 잔 것이다.³⁰⁾ (「벌거숭이 부락」, p.128)

어느 해 여름, 장마로 부락 전체가 물에 잠겨 별이가 없어지자 순남 어머니는 남편 성도를 설득해 딸 순남을 기밀창기업자인 고주사에게 80원을 받고 판다. 딸의 몸값인 80원을, 아버지 성도와 어머니는 각각 50원과 30원씩 나누어 갖는다. 그녀는 그길로 시내 금방에 가서 배분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여 금반지를 사서 끼고 남편 앞에서 멋을 부린다. 그러나 남편 성도는 이런 아내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길한 번 주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매매춘을 나가 외박까지 한다.

다음은 부락의 중년 여인들이 석탄 서리를 나서면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고충을 우회적으로 한탄하는 장면이다.

30) その夜媧あはケトンバーの母の借金を返済すると残りの金を持って新市街の或る金房に行つて一匁五分の金指輪を十九円五十錢で買つてはめた。成道は夕飯も食へずに出て行つたが、そのまゝその夜家へ歸らなかつた。五錢ガルボの家に行つて寝たのであつた。

칠성녀의 어머니는 “저 미련한 놈, 5전 갈보 집에 썩은 XX냄새 맡으러 매일 밤 간데요. 툇”³¹⁾ (『벌거숭이 부락』, p.124)

“남자들이란 정말 개와 한가지야. 저런 더런 간나에게 흘려서...”³²⁾ (『벌거숭이 부락』, p.125)

부락의 중년 여성들은 하나 같이 남편에게 성애의 대상에서 소외당한 쓸쓸함을 “5전 갈보”를 비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렇다면 유교는 결혼한 여성의 성을 어떻게 이념화해 통치해 왔을까? 조선 사회가 유교 이념에 근거해 유지되는 방식은 바로 예비례(禮非禮) 담론이었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과 차별적인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인간다움의 실현이라는 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어 효과적인 통치를 가능케 했다. 조선의 禮敎가 지향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여중군자(女中君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예교적 여성은 中性的 혹은 無性的인 존재로 性성이 완전히 배제된 존재이다. 유교에서는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는 논리로 여성의 性을 매우 불온시 하였다. 따라서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자각은 금기 사항이었다. 특히 며느리는 생물학적인 성을 매개로 가문에 편입되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성적 기능을 배제 당한다. 며느리의 성은 출산의 도구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일깨우는 조건(성욕)으로서는 주목받지 못한다. 즉 며느리의 성은 출산을 통한 가문의 승계를 담당하는 가문의 도구인 동시에 출산을 통해 가문 내 며느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정절의 강조나 재가금지 모두 이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³³⁾

그러나 왜인지 푸념은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들의 성적 매력을 갈고 닦아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자주적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양은영(1995)은 유교적 문화 속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정숙한 아내” “암전한 아내” “알뜰한 아내”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성생활을 위

31) 七星女の家の前に來た時、七星女の母が夫と何か口論してゐる聲がきこえた。(中略) 「こんなに夜遅く、何んの喧嘩ですか?」副突の母が、歩きながら訊いた。「あのトンチキ野郎、五錢ガルボ奴め(カンナ)の所に、腐つたXXの匂ぎに、毎晩行くよつ、ペツ」(中略) 「あの梅毒(ナチル)でもうつつたら、大変ですよ。わしもう死んでも、あのトンチキ野郎とは寝ないわよ」

32) 「男の奴つて全く犬ハンガジ(同じ)だよ。あんなキタナイ女奴め(かんな)に惚れて...。」

33) 김연순(2005)의 앞의 논문. p.38

해 아내들에게 도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여자의 성감대는 육체에 있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다. 여자를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은 결코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³⁴⁾ 고 일침을 놓기도 한다.

한편, 부락의 중년 과부의 성생활을 살펴보자. 그녀는 2년 전 매립지 부락으로 이사와 즐지에 아이들과 남편을 잃었다. 부락에서 “제일의 미인”인 그녀는 남편을 잃고 성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차 십장”과 하룻밤을 보낸다.

5전 갈보! 그녀는 부락에서 제일의 미인이자 성병 매개자였다. 공장지대로 나와 두 명의 아이를 잃고 게다가 남편이 작년 여름 대차를 밀다가 대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무참히 죽은 후 그녀는 먹고 살 방도가 없었다. 대차 십장에게 하룻밤을 허락 한 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파는 것 외에는 생활의 방도가 없었다. 그녀가 이 부락에 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이 부락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몸을 산 사람은 고주사였다. 그 때 고주사는 그녀에게 얼마라도 쥐어 주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5전밖에 없었다. 그거라도 담배를 산다며 그녀는 받았다. 그 때부터 모두들 그녀를 5전 갈보라고 불렀다.³⁵⁾ (『별거숭이 부락』, p.124)

그 후 돈 많은 고주사가 5전에 그녀의 몸을 산 것을 계기로, 그녀는 몸을 자인화 한다. 그녀가 상대한 남성들은 칠성녀의 아버지, 박돌 아버지, 호민 아버지, 미혼자 마당돌, 게다가 순남아버지까지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매매춘으로 그녀는 성적 욕구도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도 누린다.

부락민들이 대홍수로 대지 임대료를 재촉 받고 있으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판국이라 모두들 임대료를 낼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유롭다.

15일 정오까지 대지임대료를 지불한 집은 겨우 성도네와 5전 갈보 두 집뿐이었다.³⁶⁾ (『별거숭이 부락』, p.128)

34) 양은영(1995), 『아줌마는 야하면 안 되나요?』, 다솔, p.28

35) 五錢ガルボ! 彼女は部落一番の美人であり、性病の媒介女であつた。工場地帯に出て来て、二人の愛兒を失ひ、その上昨年夏、トロッコ押しの夫が、トロッコにひかれて無慘な死を遂げると、彼女には、生活の途が絶えた。トロッコの仕長に一夜を許すと、彼女は自分の肉を賣るより、生活の途がないと云ふ事を知つた。彼女がこの部落に來たのは、昨年秋であつた。この部落で、最初彼女の肉を買つたのは高主事であつた。その時高主事は、彼女に幾らか持たせてやらうと思つて財布を探すと、生憎五錢白銅一個しかなかつた。それでもタバコを買うといつて、彼女は受け取つた。この時から皆は、彼女を五錢ガルボと呼んだ。

36) 十五日の晝までに賃地料を支拂つた家は僅か成道と五錢ガルボの二軒しかなかつた。

부락에서 임대료를 낸 집은 성도네와 5전 갈보네 뿐이다. 성도는 딸을 기생으로 팔아 서 받은 돈으로, 5전 갈보는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임대료를 낸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그런 그녀를 내버려두고 보지는 않았다. 성에 대해 무지한 그녀를 성병인 매독에 걸리게 한 것이다. 국가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 받지 못한 그녀는 매독에 걸려 부락 남성들에게 옮기는 매개자로 전락하여, 3차 감염 원인 부락 여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

거저 매독이라도 옮기는 날에는 큰일이요. 나는 죽어도 저 미련통이 하곤 잠자리 같이하지 않을 거요.”³⁷⁾ (『별거숭이 부락』, p.124)

이처럼 결혼한 여자들의 성은, 아이를 만드는 ‘낳는성’과 ‘쾌락의 성’으로 이분된다. 이러한 이분화에 의해, 아내라는 이름의 그녀들은, 쾌락의 성에서 배제되고 입장이 반대되는 여자끼리의 라이벌 의식이 조장된다. 쾌락의 성에서 제외된 매립 부락의 그녀들은 상대방을 “갈보”, “씩은 XX”, “부정한” 등으로 비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4.2 빛바랜 ‘몽당치마’

『적빈』의 매춘택은 오래전에 남편이 죽고 홀로 살아가는 이른바 과부다. 예순셋의 노인인 그녀는 오로지 두 아들을 내조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그녀의 성적 매력은 철저히 배제된다. 문중에서 그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늙은이는 혼자 생각다 못하여 노란 것, 흰 것, 검은 것이 한데 섞인 몇 가락 안 되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담아 쫓겨 찌르고 누덕누덕 걸어 맨 적삼에다 걸레 같은 몽당치마를 입고 빨리 집을 나섰다. (『적빈』, p.464)

모두들 비웃고 핀잔주고 놀려주고 할 뿐이라 늙은이는 이지러지고 뿌리만 남은 몇 개 안 되는 이빨을 드러내어 “히에.”하고 고양이 같이 웃어 보이는 수밖엔 없었다. 웃으면 똥아 배틀어진 우렁뿌리 같은 그 얼굴에 누비질한 것같이 잘게 깊게 잡힌 주름살이 피어지며 온 얼굴이 흰 줄로 밧 골진 것같이 보였다. (『적빈』, p.464)

늙은이는 남은 밥을 병어리에게 먹여놓고 차마 어린것을 싸놓은 치마를 벗기

37) 「あの梅毒(ナチル)でもうつつたら、大変ですよ。わしもう死んでも、あのトンチキ野郎とは寝ないわよ」

지 못하여 떨어진 속옷 바람으로 어둡기를 기다려 자기 집으로 보리쌀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적빈』, p.470)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올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뚱이를 벌름거리며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달음을 치는 것이었다. (『적빈』, p.471)

위의 인용을 종합해 보면 매춘택은 “노란 것, 흰 것, 검은 것이 한데 섞인 몇 가락 안 되는 머리”와 “이지러지고 뿌리만 남은 몇 개 안 되는 이빨”과 “웃으면 곱아 배틀어진 우엉뿌리 같은 그 얼굴에 누비질한 것같이 잘게 깊게 잡힌 주름살이 편” 얼굴에 “코끼리 껍질 같은 몸뚱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매춘택이 걸치고 있는 “걸레 같은” “몽당치마”는 노년의 쇠퇴한 섹슈얼리티를 대변해 준다. 예로부터 치마는 입는 방법에 있어 반인(班人)계급은 좌(左)로, 서민계급은 우(右)로 여미어 입어 반상을 가렸고, 색상에 있어서는 출가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다홍치마, 중년이 되면 남치마, 노년이 되면 옥색·회색 계열의 치마를 주로 입었다. 개화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짧은 통치마가 나타났고 이에 맞추어 저고리의 길이는 늘어났다. 오늘날 예전의 짧은 치마류는 양장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긴 치마는 한복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³⁸⁾

그러나 노년의 치마는 더 이상 여성성을 나타내고 미를 더해주는 물건이 아니라 “갓 태어난 손자를 싸”고 마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보리쌀을 받는 용기 대신으로 쓰인다. 게다가 이제는 몽당치마마저 갓 태어난 손자에게 빼앗기고, 속옷 차림으로 길을 나서는 탈성화 된 노년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늙은이는 무표정한 얼빠진 듯한 얼굴로 체머리만 바쁘게 찢레찢레 흔들며 연방 콧물을 잡아 뜯듯이 닦았다. (『적빈』, p.465)

더욱이 매춘택은 나이가 들어 “체머리”를 흔들기 까지 한다. 이러한 “체머리” 증상은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허해 머리까지 기운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머리까지 힘이 잘 미치지 못하게 되니 흔들흔들 거리게 된다는 게 병리적 해석이다.³⁹⁾ 이렇듯 소설 속에서 노년은 무능한 남편과 아들 부양에 평생을 보낸 탓으로 기력이 쇠잔해 진 탈성화된 모습으로 묘사된다.

38) Daum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2007.9.18

39) 남상천 한의원 (<https://www.medcity.com>)

김기영(2005)은 노년의 性에 대해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순결주의’를 강요받았고 결혼 후에는 ‘여필중부’의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욕망과 쾌락을 남성에게 맞추어 억제해왔다. 이리다보니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충성도와 집착은 상당히 높다. 흔히 ‘모성’이라고 불리는 여성적 특징은 어떤 면에서 바로 스스로의 욕망과 쾌락을 억제하고 제한한 것을 대가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의 개방 풍조에 대해 여성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을 ‘가정과괴’에서 찾는다. 이는 자기 욕망을 부정하고 쾌락을 스스로 금지해왔던 여성의 희생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가정에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성의 개방 풍조(성산업이나 상업화)에 대한 격렬히 항의하는 보수적인 여성들의 밑바닥에는 공평한 희생에 대한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 성욕의 특징은 억제, 금지, 희생이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관념과 관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 아무리 노년의 성을 이야기한들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역설하였다.⁴⁰⁾

그녀의 주장처럼, 사회주의 운동가와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로서 31세에 요절한 작가 백신애에게도 역시 여성 노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선은 없다. 보수적인 아버지와 첩 문제로 괴로워하던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성장한 그녀에게 개방적 성애의 시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적빈」의 매춘택의 섹슈얼리티 역시 이러한 작가의 체험과 문화적 기반위에서 그려지고 있으며, 「강한 모성」을 발휘하는 대신 성적 욕망을 억제한 탈성화된 노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형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성숙된 사회라면 성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5. 나오며

한국의 대표적 프롤레타리아 작가 백신애와 이북명의 체험적 소설 「적빈」과 「벌거숭이 부락」을 포스트 프롤레타리아의 여성상 제시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적빈」과 「벌거숭이 부락」의 무대는 각각 가난한 농촌마을과 매립지 부락이며 하층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정서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에 형상화되는 여성들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거나 권력과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 즉, 그녀들은 저마다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며 무능한

40) 김기영(2005), 『다시 찾은 性의 renaissance』, 선미디어, pp.193-195

남편과 아들을 위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의 집 허드렛일로 가족을 부양하고 내조하는 지극히 탈정치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여성의 삶은 결혼 후의 ‘시집살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살아 온 구여성들의 삶이 재현되어 있다. 이는 삼종지도를 내면화한 ‘내조’하고 ‘치산’하는 조선 전통의 유교적 여성상인 능부(能婦)의 모습이다.

이러한 여성상은 개화기부터 일관되게 추구되어 온 자립한 ‘신여성’의 이미지에서부터도 권력과 투쟁하며 ‘노동자를 위해 죽어갔던’ 프로 여성의 이미지로부터도 크게 벗어난 독자적인 것이다. 이러한 능부의 재탄생은 김재용의 지적처럼 1930년대의 프로 작가들이 ‘조선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조선 현실’을 그리려 했던 것에서 얻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두 소설에는, 가난에 맞서는 여성들의 치열한 삶이 생명력 넘치는 필치로 그려지지만, “금반지”와 “몽당치마”로 대변되듯 性 역시 유교적 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들의 성은 결혼한 여성의 성, 노년 여성의 성이라는 점에서 탈성화 되고, 낳는성과 쾌락의 성으로 이분화 되어 소외된다.

【参考文献】

- 김재용(1996), 「카프 신인의 등장과 소설영역의 확대」, 『한국현대대표소설선』, 창작
과비평사, p.474
- 송지현(1996),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국학자료원, p.134
- 서정자(1999),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p.221
- 전경옥 외3인(2004), 『한국 여성 정치 사회사』, 아시아 여성연구소, p.306
- 김연순(2005),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150~153
- 이은선(2000), 「유교적 몸의 修行과 페미니즘」,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Ⅱ』, 한국
유교학회, p.14
- 『우암선생계녀서』(국립중앙도서관장본), 『내훈·계녀서』, 김종권 역주(명문당,
1986)
- 여성을 위한 모임(1999), 『제3의성-중년여성 바로보기』, 현암사, p.26
- 양은영(1995), 『아줌마는 야하면 안 되나요?』, 다솔, p.28
- 김기영(2005), 『다시 찾은 性의 renaissance』, 선미디어, pp.193~195
- 布袋敏博(2004),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解説, p.327
- 靑柳優子(1997), 『韓國女性文學研究』, お茶の水書房, pp.71~76
- リサ・タトル(1991), 『フェミニズム事典』, 明石書店, p.230
- 권영민(1990), 『한국근대문인대사전』
- 권영민(2004), 『한국현대문학 대사전』
- 남상천 한의원 (<https://www.medcity.com>)
- Daum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2007.9.18

要 旨

1920年代の半ばから1930年半ばの約10年間における韓日文壇は、プロレタリア作品が主流であった。ところが、日本政府の相次ぐ検閲と弾圧により、プロ作家たちは'転向'を余儀なくされた。当然の如く、文学のテーマもまた世界恐慌といった時代状況と相まって'闘争'から'生活'へと移っていった。

ペク・シンエの「赤貧」とイ・ブクミョンの「裸の部落」は、こうした厳しい状況の中で生まれた。当然の如く、文学者たちの目に移ったのは「朝鮮人民たちの生活状況」であった。するとそこには、行き場を失った男性たちの姿と、彼等に代わって頑張っている女性たちの姿があった。二つの作品には、生活力を失った家長の代わりに、家計を支えている女性の姿が描かれている。彼女たちは家族のためによく働き、夫や息子を内助する。それは他でもない、朝鮮時代から引き続けている'能婦'の姿であったのである。

二人のプロ作家は、「闘争するプロ女性」から生活する伝統的女性であり、脱政治的な「能婦」を再誕生させ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プロレタリア女性、下層階級、無能力、家父長、脱政治、能婦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